

上代文獻의 數詞表示字 研究

-二·兩을 중심으로-

안 희 정*

目 次

1. 들어가는 말
 2. 중국어의 二·兩
 - 2.1 현대 중국어에서의 二와 兩
 - 2.2 고대 중국어에서의 二와 兩
 3. 『日本書紀』의 二와 兩
 - 3.1 二·兩의 各用項目
 - 3.2 二·兩의 混用項目
 4. 나가는 말
-

1. 들어가는 말

한문에서 ‘둘(two or double)’과 관련이 있는 유사한 자들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두 사람’의 의미로 ‘二人’과 ‘兩人’, ‘둘로 나눈다’는 의미로 ‘二分’과 ‘兩分’처럼 의미가 相通하여 자유롭게 바뀌 쓸 수 있는 경우가 있는 반면, ‘二部’와 ‘兩用’ 등과 같이 바뀌 쓸 수 없거나 각 字의 의미영역이 고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再婚’과 ‘重婚’은 의미하는 바가 다르고, ‘身土不二’의 경우 ‘二’의 자리에 ‘兩’을 넣을 수 없고, ‘一舉兩得’의 경우 ‘兩’의 자리에 ‘二’를 넣을 수 없다. 또한 중국어에서는 ‘雙手’와 ‘兩手’는 각각 ‘두 손’과 ‘두 가지의 계약(방법)’을 의미하기도 하고, ‘二重人格’과 동일한 의미로 ‘雙重人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짝수 날의 의미인 ‘偶日’을 ‘雙日’로, 입술 소리의 의미인 ‘兩脣’

* 위덕대학교 전임강사 상대일본어학

音'을 '双唇音'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다시 말해 '二·兩·再·重·双' 등과 같은 字들 사이에는 그 意味領域에 있어 相異가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상대 자료에서 複數로 쓰인 諸字에 대한 용자법 검토는 앞으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다.

특히 '二'와 '兩'은 현대어에서는 상당 부분 상호 교체가 가능하지만, 고대어에서의 '二'와 '兩'은 현대어에 비하면 두 字 사이에 공통점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 差異가 매우 크다고 한다.

본 고에서는 수사 표시자 중에서 유사한 의미를 지닌 '二'와 '兩' 두 字에 대하여 현대 중국어의 용법과 고대 중국어의 용법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여, '二'와 '兩' 두 字가 상대 일본 문헌인 『日本書紀』에서 어떻게 반영되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다.

수사는 일찍이 万葉集, 古事記 등에서의 수사 연구를 비롯하여 일본어 수사의 변천과 기원 및 고대 일본어의 수사, 그리고 모음조화와 관련된 수사의 분석 등 일본어사, 어휘, 음성, 음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 대상이 되어 왔다¹⁾. 그 중 三保忠夫는 「古文書における助数詞-1-」²⁾의 연구를 비롯하여 최근에 이르기까지 조수사, 양사에 대해 수십 편의 논문과 古代木簡資料와 正倉院文書の 조수사의 전체상을 명확히 밝힌 『木簡と正倉院文書における助数詞の研究』를 발행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수사에 대한 연구는 꾸준히 지속되고 있으나, 국어사적인 측면에서의 접근이 대부분이며 또한 너무 포괄적이다. 현재까지 연구되어 온 것처럼 수사의 전체상을 다루는 것은 물론 중요하다. 왜냐하면 고대에서의 수사의 현상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기도 하거니와 당시 사람들의 수사에 대한 인식을 알 수 있음과 동시에 고대 한국, 중국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생각할 때 하나의 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고대 자료를 대상으로 수사 등에 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 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고대 문헌들이 문서이고 역사서라는 기록 자료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용법과 표기면에서 보다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앞서서도 언급하였듯이 用字에 따라서는 서로 바꾸어 쓸 수 없는 고유의 의미 영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 1) 津留繁雄(1954) 「万葉集に見られる数詞について」 『不知火』 7
 中田祝夫(1960) 「古事記の古訓-数詞の訓み方の一つの場合-」 『二松学舎大学論集』
 築島裕(1965) 「日本語の数詞の変遷」 『言語生活』 166
 川本崇雄(1975) 「日本語の数詞の起源」 『季刊人類学』 6-2
 安田尚道(1978) 「古代日本語の数詞をめぐって」 『言語』 7-1
 福田昆之(1982) 「数詞の母音調和の識別性の分析(補)」 『言語と言語学』 5
- 2) 三保忠夫(1989) 「古文書における助数詞-1-」 島根大学教育学部紀要 23(1)

못 쓰였다면 그것은 오용으로 보아야 하고, 그것을 전제로 연구를 진행하여야 하나 일본어 내의 분석으로만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결국 이제까지의 연구는 보다 근본적인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중국어 속에서도 시대 변천에 따라 용법에 커다란 차이를 보이는 類似字 ‘二’와 ‘兩’의 용법이 상대 일본 문헌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특히 정통 한문체인 日本書紀의 검토는 더욱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아울러 두 字를 구체적으로 다룬 연구는 필자가 조사해 본 결과로는 아직 발견하지 못했기에 본 고에서 다루게 되었다.

2. 중국어의 二·兩

2.1 현대 중국어에서의 二와 兩

현대 중국어에서의 ‘二’와 ‘兩’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쓰인다. 먼저, ‘二’를 살펴 보기로 하겠다.

첫째, 한어 속에서 ‘2’는 二 혹은 兩으로 표시할 수 있는데,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에 二를 쓴다. 예를 들면 ‘一, 二, 三’과 ‘这是二’의 표현은 가능하지만, ‘一, 兩, 三’과 ‘这是兩’과 같은 표현은 쓸 수 없다.

둘째, 두 자리수 이상의 數 표현에서 한 자리수의 2는 二로 표기한다. 예를 들어 32人和 102회를 표현한다면 다음과 같다.

花不语走进一看, 赫然发现屋中竖有三十二根石柱, 其中三十一根柱子上都绑着人, 一色的年轻男人, 他进来, 正好凑齐双数三十二个人。(32人)

第二届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第一百零二次会议1963年9月28日举行。(102回)

셋째, 종래의 도량형에서는 兩이 쓰이기도 하지만, 二로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八十二尺庞然大物 香港富豪奢华游艇。(2尺)

“三块, 我咬了咬牙, 给你买了二斤, 放到后屋的厨柜里了, 你去吃吧。”(2斤)

넷째, 중량을 나타내는 단위의 兩 앞에서는 반드시 二를 쓴다.

他今年65岁，夏天经常独自到国际海水浴场游泳，每次都是下午喝过二两酒³⁾以后去，从来也没出过问题，没想到这次出现了意外，以后自己再也不敢饮酒后去游泳了。(酒100 g)

다섯째, ‘十’ 앞에서는 二를 쓴다. 그리고 ‘百’ 앞에서는 일반적으로 二를 쓰지만 兩을 쓰는 경우도 있다.

万国邮政联盟成立一百二十五周年。(125周年)
我知道，我的二百五十块，已经买了那个曾经誓言“用人格担保”的女人的人格。
(250위안)
课本费也非常贵，大概两百块钱到两百五十块钱。(250위안)

여섯째, 자리수가 많은 數에서는, 윗자리부터 두 번째 자리수 이하에서는 일반적으로 二를 쓴다. 예를 들면 222,502,222위안(元)을 표시한다면, 兩亿二千二百五十万二千二百二十二元과 같다.

일곱째, 서수의 2는 다음과 같이 二로 나타낸다.⁴⁾

上海第二工业大学自学考试教育中心。

여덟째, 소수점의 2는 다음과 같이 二를 사용한다.⁵⁾

每零点二五秒两个在指尖的感应器就会量。

아홉째, 분수의 2도 다음과 같이 二가 쓰인다.

如二分之一，百分之二，千分之二，不能说成“两分之一”，“百分之两”，“千分之两”。

마지막으로, 수학에서 쓰이거나, 양사를 동반하지 않는 경우는 二를 쓴다. 예를 들면 二加五等于七(2+5=7) 및 一元二次方程(一元二次方程式)과 같이 표기한다.

3) 二两(100그램. 1两은 50그램임)

4) 第二(제2), 二哥(둘째 형)

5) 零点二(0.2), 三十六点二(36.2)

다음으로 ‘兩’을 살펴보기로 하자.

첫째, 일반적으로 量詞 앞 한 자리수의 2는 兩을 쓴다.⁶⁾ 예를 들면 ‘今天之所以介绍这两本书, 是因为我要介绍这两本书’와 같다. 둘째, 외국에서 들어온 새 도량형 앞에서는 대개 兩을 쓴다. 예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一人多高, 三人合抱, 估计有两吨多重, 巨石左下方有一棵被压弯的小树。(2ton)
前方两公里车行速度缓慢, 建议改道行驶!”(2km)
国家气象中心预测未来两天当地丹佛市的降雪量将深达两英尺厚。(2feet)

‘…總重五十二吨…(52ton), …漫長的十二公里…(12km), …高五十二英尺的礦段…(52feet)’와 같이 물론 二를 쓰는 경우도 보이는데 이것은 二의 용법에서 살펴본 두 자리 이상의 數의 예이다. 셋째, ‘千·萬·億’ 앞에서는 다음과 같이 대개 兩을 쓴다.

台北市自八十九万两千一百年的两四十七元增加至九十四年的两万四千八百零二元, (24,800)
未来五年, 中国将有两亿人口进入中产阶层消费群。(2억의 인구)

그러나 이 경우도 二를 쓰는 예가 보이는데,

一亿人的富裕致使十二亿人口的更加的贫穷。(12억의 인구)

이 예 또한 두 번째 용법과 마찬가지로 두 자리 이상의 경우에 쓰여 二에서 언급한 32인과 같이 두 자리수 이상의 數 표현에서 사용된 것이다.

넷째, ‘半’ 앞에서는 兩을 쓴다.⁷⁾

快速路两半环今年合龙开车50分钟绕城一周。

다섯째, 兩弟兄(두 형제) 및 兩姐妹(두 자매)와 같이 대(對)를 이루는 친족을 함께 부를 때 兩을 쓴다. 단, ‘父母’에게는 兩을 쓰지 않는다.

여섯째, 다음과 같이 文語 및 관용표현⁸⁾에 兩을 많이 사용한다.

6) 两本书(2권의 책), 去了两次(2번 갔다), 两匹马(말 두 필), 增加两倍(3배로 증가하다)

7) 分成两半儿(둘로 나누다, 반씩으로 나누다)

8) 两便(쌍방이 다 편하다. 서로 편한대로 하다), 两利(쌍방에 모두 이롭다), 两全其美(쌍방이 모두 좋게 하다), 两相情愿(쌍방이 모두 원하다), 两两相对(둘 씩 상대하다)

劳资两利。

到了目的地，咱们就两便吧。

일곱째, ‘2~3’의 不定數를 나타낼 때 兩을 쓴다. 통상적으로는 ‘2~3’을 나타내지만, 막연한 부정 수량을 나타내기도 하며 이 경우 ‘几’로 교체가 가능하다.⁹⁾

过两天再说。

他真有两下子。

이상과 같이 ‘二’는 주로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 두 자리수 이상의 數 표현에서 한 자리수의 2, 종래의 도량형, 중량 단위의 ‘兩’과 ‘十’ 앞, 자리수가 많은 數에서는 윗자리부터 두 번째 자리수 이하, 서수, 소수, 분수, 수학 등에서 쓰인다. ‘兩’은 양사 앞 한 자리수의 2, 외국에서 온 새 도량형 앞, ‘千·萬·億’ 앞, ‘半’ 앞, 대를 이루는 친족을 함께 부르는 경우, 문어 및 관용표현, ‘2-3’의 부정수를 나타낼 때 등에 쓰인다. 그러나 이 두 字의 쓰임은 상호 교체가 전혀 불가능하거나 ‘반드시’ 어느 字를 써야 한다가기 보다는 ‘일반적으로’ ‘주로’ ‘대개’ 어느 字가 주로 쓰이고 다른 한쪽도 쓰이기도 한다는 정도의 구분이 강하며, 二가 兩에 비해 의미영역이 상대적으로 넓지만 두 字는 비교적 상당부분 의미영역을 共用하고 있다.

2.2 고대 중국어에서의 二와 兩

본 절에서는 고대 중국어에서 사용된 ‘二’와 ‘兩’의 용법을 검토해 보기로 하자. 먼저 二의 용법으로 다음 예문을 보면,

①吾一婦人而事二夫，縱弗能死，其又奚言？（左傳 庄公14年）

②君子不重傷，不禽二毛。（左傳 僖公22年）

③其竭力致死，无有二心。（左傳 成公3年）

君若不來，群臣不忍社稷宗廟，惧有二圖。（左傳 襄公7年）

④禮无加貨，事无二成。（左傳 成公8年）

⑤作五帝本紀第一 …… 作夏本紀第二 …… 作殷本紀第三。（史記 自序）

①의 ‘一婦’와 ‘二夫’의 ‘一，二’는 基數로 쓰인 경우 즉, 實數를 표시한 것이

9) 两天(2~3일), 两下子(약간의 기술. 솜씨)

다. ②의 ‘二毛’는 学研漢和大辭典¹⁰⁾에 의하면, ‘頭髮に白髮がまじっていること。また白髮まじりの老人’을 의미하여 ‘연로(年老)하다, 나이가 많다’에 대한 비유표현으로 쓰인 比喩的用法에 ‘二’가 사용되고 있다. ③의 ‘二心’은 ‘忠実でなく、主君・主人や味方にそむく心。ふたごころ’라고 하여 ‘다른 마음을 품다, 두 마음을 가지다’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二圖’도 ‘其他’ ‘別有用心’¹¹⁾이라고 하여 ‘따로 저의가 있다, 다른 의도가 있다’는 의미를 나타낸다.¹²⁾ ④의 ‘禮无加貨, 事无二成’의 내용은, ‘禮에는 재물을 덧붙여 주는 법이 없듯이 事에서도 일단 결정된 일은 변경할 수 없다’는 의미로, ‘二成’은 앞 문장에 나온 出師와 緩事を 다시 언급하는 대명사(적)용법으로 쓰였으며, 이 둘은 서로 有關한 雙方을 표시한다. 이와 같은 용법을 ‘유관성을 지닌 雙方’을 표시하는 용법이라고도 한다. ⑤의 ‘第一, 第二, 第三’은 ‘第’와 함께 쓰여 서수를 나타내는 용법이다.

한편, 兩의 용법은 다음과 같다.

- ①射兩鞬而還。(左傳 襄公14年)
物生有兩。(左傳 昭公32年)
- ②目不能兩視而明、耳不能兩聽而聰。(荀子 勸學)
賢舜則去堯之明察, 聖堯則去舜之德化, 不可兩得也。(韓非子 難一)
- ③蔡侯爲兩佩与兩裘以如楚。(左傳 定公3年)
范獻子求貨于叔孫, 使請冠焉。取其冠法, 而与之兩冠。(左傳 昭公23年)
王召養由基, 与之兩矢, 使射呂錡。(左傳 成公16年)
- ④之子于歸, 百兩御之。(詩經 召南 鵲巢)
牛車千兩, 木器髹者千枚。(史記 貨殖列傳)
- ⑤並后匹嫡, 兩政耦國, 亂之本也。(左傳 桓公18年)
行衢道者不至, 事兩君者不容。(荀子 勸學)
- ⑥以兩之一卒適吳, 含徧兩之丁焉。(左傳 成公七年)

①의 경우, 첫번째의 ‘兩鞬’는 수레의 두 바퀴라는 의미이고, 두번째의 ‘兩’은 좌우 양쪽을 의미한다. 学研漢和大字典(1997: 20)에 의하면, ‘兩’은 ‘二つで対をなすもの。また、二つで対をなしている’의 의미이고, 解字 또한 ‘左右兩方が対をなして平均

10) 藤堂明保(1997) 『学研漢和大辭典』 学習研究社 p.34
 11) 吕叔湘(1989) 「左传的数量词」(『语言文字学术论文集』) 知识出版社出版 p.97
 12) ‘一’의 본래 의미는 숫자 1인데, 후에 집중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二’는 본래 숫자 2의 의미인데, 一이 집중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므로 二는 집중하지 않는다는 반대 의미를 갖게 되었다. 따라서 ‘二心’은 집중하지 않거나 충실하지 못한 것을 가리킨다. 박영중외(2002) 『중국문화에 담긴 중국어 이야기』 다락원 p.166

したばかりを描いたもの'라고 되어 있다. 따라서 ①은 처음부터 짝이나 대립을 이루는 쌍 즉, 自然對立雙의 용법으로 쓰이고 있다. ②의 경우, '兩' 뒤에 오는 字를 보면, '視, 聽, 得' 즉, 동사가 위치해 있다. 첫번째 예는 '눈은 동시에 두 곳을 볼 수 없지만 분명히 볼 수 있고, 귀는 동시에 두 곳의 소리를 들을 수 없지만 분명히 들을 수 있다'의 의미로 '兩視'와 '兩聽'은 각각 두 번 보고 두 번 듣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同時에 보고, 同時에 듣는다는 의미이다. 두번째 예의 '不可兩得'도 '동시에 얻을 수 없다'는 의미로 '兩得'도 두 가지를 얻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同時에 얻는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一舉兩得이 '한 번에 두 가지를 얻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정확하게는 '동시에 두 가지를 얻는다'는 의미인 것이다. 여기에서의 '兩'의 용법은 副詞性修飾語 혹은 連用修飾語를 만들어 동사 앞에 위치하여 '同時' 혹은 '雙方'의 의미를 나타내는 용법이다. ③의 경우, '兩佩·兩裘·兩冠·兩矢'는 '佩·裘·冠·矢'가 각각 같은 모양의 두 물건임을 나타내고 있다. 즉, 同樣兩物을 나타내는 용법으로 쓰이고 있다. ④의 경우, '百兩'은 '百兩車'로 영접했다는 의미로, '千兩'은 우마차(牛馬車) '천대'의 의미로 차(車)의 대수(臺數)를 세는 單位詞(量詞)의 용법으로 쓰이고 있다. ⑤의 경우, 王力の 설명에 의하면,

在先秦時代, “兩”字就有了兩種引申的意義。第一種引申的意義是:本來是獨一無二的事物, 在特殊情況或假說情況下, 就以兩個並稱。…[“兩政”, 指兩個政府或政權。]13)

와 같이 '兩政'은 '두 정부 혹은 두 정권'을 의미하고, '兩君'은 '두 임금'을 의미한다. '政(Government)' 혹은 '君(Lord)'과 같이 추상적인 개념이든 실존하는 것이든 오로지 하나만 존재하여야 마땅한 獨一無二한 것을 의미하므로 문맥으로 보아 '兩政'은 '두 정부' 혹은 '두 정권'이라는 특수한 상황(特殊狀況)을 나타내는 것이고, '兩君'은 '두 임금을 섬긴다면'이라는 가설상황(假說狀況)을 묘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⑤는 獨一無二한 것으로 특수상황 혹은 가설상황을 나타내는 용법이다. ⑥은 분수로 쓰인 경우이다. 현대어의 '1/2'은 '二分之一'로 '二'를 사용하지만 고대어에서는 분모에는 반드시 '兩'을 사용하여 '兩分之一'과 같이 표현한다. ⑥의 '兩之一'과 같이 分을 생략하는 표현 및 '兩之'와 같이 더 축약된 표현도 같이 존재한다.

이상을 정리해 보면, '二'는 實數, 比喻的用法, 其他·別有用心의 용법, 유관성을 지닌 雙方, 그리고 서수 등을 나타내는 용법이 있으며, '兩'은 自然對立雙,

13) 王力(1996)『漢語史稿(修訂本)』中華書局出版 北京 pp.247-248

同時 혹은 雙方, 同様兩物, 單位詞(量詞), 獨一無二(특수, 가설상황)의 용법, 그리고 분수를 나타내는 용법이 존재하여 두 字는 相異한 의미 영역을 확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日本書紀』의 ‘二’와 ‘兩’

본 장에서는 2장에서 살펴 본 고대 중국어 용법을 기준으로 日本古典文學大系本の 『日本書紀』¹⁴⁾를 대상으로 ‘二’와 ‘兩’이 개별용법으로 쓰인 경우와 동일한 용법에 혼용되어 쓰인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日本書紀에서는 ‘二’가 총 775회, ‘兩’이 총 54회 쓰였는데, 분석 과정에서 書紀區分論이나 α群·β群說이 과연 ‘二’와 ‘兩’의 용법에서도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있는지도 함께 검토해보기로 하겠다.

3.1 ‘二·兩’의 各用項目

이 절에서는 日本書紀에서 ‘二’와 ‘兩’이 相異하게 독립적으로 쓰인 항목을 살펴보겠다. 먼저 ‘二’의 용법을 보면 다음과 같다.

- ①二年春二月甲辰朔乙巳、天皇定功行賞。(卷3 神武紀 二年二月)
- ②后生二皇子。第一曰息石耳命。第二曰大日本彥耜友天皇。(卷4 安寧紀 三年正月)
- ③又於農月、不合使民、緣造新宮、固不獲已。深感二途、大赦天下。(卷25 孝德紀 大化二年三月)

①은 ‘~年, ~月, ~日’에 쓰인 경우 즉, 실수의 용법으로 쓰인 경우로 308회가 보였고, ②는 ‘第’가 앞에 위치하여 순서를 나타내는 전형적인 서수(序數)의 용법으로 쓰인 경우로 75회가 보였다. 한편, ③은 ‘又、農の月にして、民を使ふ合からざれども、新しき宮を造るに縁りて、固に已むこと獲ず。深く二つの途を感けて、天下に大赦す’의 의미인데, 여기에서 ‘二途’는 大系本の 孝德紀 p.290 頭註9를 보면 “諸の神に幣たてまつることと、農月云々と”로, 小學館本 『日本書紀』¹⁵⁾의 孝德紀 p.145 頭註21에는 “諸神への奉幣のことと農月云々のこととをいう”라고 설명되어

14) 大野晋外(1965~1967) 『日本古典文学大系 日本書紀上、下』 岩波書店 (以下 大系本)

15) 毛利正守外(1994), 『新編日本古典文学全集 日本書紀』 小学館 (以下 小学館本)

있다. 즉 ‘二途’는 ‘신에게 제사지내는 일’과 ‘농사철에 농사짓는 일’ 두 가지 일을 나타내는 비유적 용법으로 쓰였다. 이러한 용법은 『左傳』(僖公22年)에 보이는 “君子不重傷，不禽二毛”의 ‘二毛’가 ‘흰 머리가 섞이거나 흰 머리가 섞인 노인’이라는 의미 즉 ‘연로(年老)하다, 나이가 많다’는 비유적 용법과 동일하다. 비유적 용법의 예를 하나 더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③ ‘衣食之源、則二儀之隩區矣。(卷27 天智紀 元年十二月)

‘二儀’는 大系本에 의하면 ‘衣食きもの(けひもの) ねんじ之源は、二儀あめつち くむしら之隩區なり’의 의미로 “天地”에 대한 비유적 표현으로 쓰였다. 小學館本에서는 ‘二儀’를 ‘にぎ’로 읽었는데 天智紀 p.255 頭註2116)의 설명에 의해서도 비유적 용법으로 쓰였음이 분명하다. 日本書紀에서 그의 비유적 용법은 이 2예가 전부이다.

다음으로 ‘兩’의 용법을 살펴 보기로 하자.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①使海犬養連勝麻呂、授箱中兩劍於佐伯連子麻呂與葛城稚犬養連網田曰、(卷24 皇極紀 四年六月)
- ②若良女、嫁奴所生子、配其父。若兩家奴婢所生子、配其母。(卷25 孝德紀 大化元年八月)
- ③賜陰陽博士沙門法藏・道基銀廿兩。(卷30 持統紀 六年二月)

①은 大系本에서는 ‘海犬養連勝麻呂をして、箱の中の兩つの劍を佐伯連子麻呂と葛城稚犬養連網田とに授けしめて曰はく’로 훈독하였으며 小學館本에서도 해당 자는 ‘兩劍’로 훈독하였는데, 이 兩劍은 ‘(상자 속의)두 검’의 의미로 동일한 사물의 존재(同様兩物)를 나타내는데 쓰인 경우로 5회 보인다. ②는 ‘男女의 法’에 대해 말하는 내용17)에 나오는 예로 大系本에 ‘若し良女、奴に嫁ぎて生めらむ所の子は、其の父に配けよ。若し兩つの家の奴婢の生めらむ所の子は、其の母に配けよ’로 훈독하였는데 그 의미는 ‘만약 남녀 양쪽이 노비라면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어머니에게 속한다’로 小學館本에서도 해당 부분은 ‘若し兩家の奴婢’로

16) 天地。『文選』呉都賦に「二儀ノ優渥ヲ兼ネタリ」、六臣注「二儀ハ天地也」とある。

17) 전문은 다음과 같다. “又男女之法者、良男良女共所生子、配其父。若良男、娶婢所生子、配其母。若良女、嫁奴所生子、配其父。若兩家奴婢所生子、配其母。”(卷25 孝德紀 大化元年八月)

동일하게 혼독하였다. 이와 같은 용법은 ‘若’¹⁸⁾과 같이 쓰여 ‘만약~이라면’의 의미를 나타내는 ‘가설상황’에 쓰인 용법으로 1회가 보였다. ③은 ‘陰陽博士沙門法藏·道基に銀廿兩賜ふ(大系本)’와 ‘銀廿兩(小學館本)’로 혼독되는데 이것은 무게의 단위를 나타내는 단위사(量詞)로 쓰인 예로 총 5회가 보였다.

3.2 ‘二·兩’의 混用項目

앞 절에서는 ‘二’와 ‘兩’ 각각의 各用項目에 대해 살펴 보았다. 여기에서는 『日本書紀』에서 二와 兩 두 字가 混用되고 있는 경우를 살펴보고 고대 중국어의 용법과 비교해 보기로 한다.

3.2.1. 고유명사

- ①三月癸卯朔乙巳、幸二槻宮。(卷30 持統紀 十年三月)
- ②....多羅下早岐夷他、斯二岐早岐兒、子他早岐等、(卷19 欽明紀 二年四月)
- ③次生伊豫二名洲。次生筑紫洲。次雙生億岐洲與佐度洲。(卷1 神代上 第四段)
- ④大使臣乙相奄·副使達相通·二位玄武若光等。(卷27 天智紀 五年十月)
- ⑤復於嶺上兩槻樹邊起觀。號爲兩槻宮。(卷26 齊明紀 二年是歲)
- ⑥初日本武尊、娶兩道入姬皇女爲妃、生稻依別王。(卷7 景行紀 五十一年八月)
- ⑦天皇泛兩枝船于磐餘市磯池。(卷12 履中紀 三年十一月)

二的 경우, ①은 宮名(ふたつきのみや)으로 1회, ②는 ‘しにき’의 地名(斯二岐)으로 3회, ③은 人名(いよのふたなのしま)으로 9회, 그리고 ④는 ‘二(首)位, 二造’와 같은 官職名(ふたつのくらい)으로 5회가 쓰였다. 兩의 경우, ⑤는 宮名(ふたつきのみや)으로 1회, ⑥은 人名(ふたちのいりびめのひめみこ)으로 2회, ⑦은 船名(ふたまたぶね)으로 1회 쓰였다. 즉, 宮名, 地名, 人名 등의 고유명사로 쓰인 경우이다. 日本書紀에서는 二가 궁명·인명·지명·관직명에 총 18회가 쓰인 반면, 兩은 궁명·인명·선명에 총 4회가 쓰여 고유명사의 표기에 二가 압도적으로 優位를 점하고 있다.

3.2.2 자연대립쌍

- ⑧辛未、有人云、得鹿角於葛城山。其角本二枝而未合有穴。(卷29 天武紀下 九

18) 若과 함께 쓰인 예가 2회 더 보이나 “若有驗者、髮自分爲兩。(卷9 神功 攝政前紀 仲哀天皇九年四月)”은 若이 者에 걸리는 종속절문에 쓰여 수사 兩과는 관계가 없이 ‘단독’으로 쓰인 경우이며, “若經十年及二十年、適人爲婦(卷25 孝德紀 大化二年三月)”의 二는 十年을 수식할 뿐 若과는 관계가 없는 예이므로 본문에서 기술하는 가설상황을 나타내는 용법과는 거리가 있다.

年二月)

⑨因以詔之曰、凡出入宮門、以兩手押地、兩脚跪之、越柵則立行。(卷22 推古紀十二年九月)

⑧의 ‘二枝(ふたまた)’는 ‘사슴 뿔이 본래 두 개’라는 의미이며, ⑨의 ‘兩手(ふたつのて)’ 및 ‘兩脚(ふたつのあし)’은 ‘양 손’, ‘양 발’의 의미로 본래부터 대립하고 있는 한 쌍을 나타내기 위해 쓰였다. 이것은 앞서 고대 중국어 용법에서 언급하였듯이, 수레의 두 바퀴 혹은 신체의 좌우 양쪽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래부터 짝이나 대립을 이루는 쌍을 의미하는 自然對立雙에 해당한다. 이 용법의 경우 고대 중국어에서는 兩이 담당하는 용법이므로 엄밀하게 말하면 ⑧은 兩이 쓰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日本書紀에서 이와 같이 자연대립쌍으로 쓰인 예로 兩의 7회 이외에 二도 3회나 쓰였다. 二가 쓰인 나머지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⑧’ 秋七月乙未朔辛丑、饗百濟客於朝。是月、瑞蓮生於劔池。一莖二花。(卷23 舒明紀 七年七月)

⑧” 戊申、於劔池蓮中、有一莖二萼者。豐浦大臣、妄推曰、是、蘇我臣將榮之瑞也。(卷24 皇極紀 三年六月)

⑧’과 ⑧”도 ⑧과 마찬가지로 고대 중국어의 용법에 따르면 兩이 와야 하는 용법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⑧’는 百濟客에게 향응을 베푼 그 달에 연꽃이 피었는데, 한 줄기에 꽃 한 송이가 아닌 두 송이가 피었다는 내용으로, 瑞蓮^{あやしなはな}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 일반적인 현상이 아님을 알 수 있다. ⑧”는 劔池^{つるぎのいけ}의 연꽃 중에 한 줄기에 두 개의 萼^{はなぼこ}이 있는 연꽃이 있었다는 내용으로, 뒤에 나오는 瑞^{みつ}에서 알 수 있듯이 상서로운 징조를 의미한다. 또한 앞의 ⑧은 어떤 사람이 산에서 鹿角을 얻어 기이하게 생각하여 헌상하는 내용인데, 뿔이 자라기 시작하는 머리부분(本)은 두 개인데 끝(末)이 하나로 되어 거기에 살(肉)이 붙고 다시 그 위에 털(毛)이 자라나 털길이가 약 3센티(一寸)쯤 된다는 내용이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자연대립쌍을 나타내는 경우 兩을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상의 3예는 모두 二로 표기되었다. 고대 중국어 용법에서 보면 모두 오용이라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 예들을 모두 誤用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가 문제이다.

⑧, ⑧’, ⑧”는 모두 하나의 중심에서 두 갈래로 대칭되어 있는, 대립으로

쌍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언뜻 자연대립쌍의 용법에 속한 것으로 판단하기 쉽다. 그러나 세 예 모두가 벌 혹은 식물의 줄기와 꽃이 대상이고 그것도 일반적인 경우에 대해 일반적이지 않은 현상 혹은 상서로운 징조를 나타내는 등 특별한 경우를 기술하는데 쓰여졌다. 이것은 兩이 쓰여야 하는 ‘兩手’이나 ‘兩脚’과는 차이가 있다. 다시 말하면 ‘양 손’과 ‘양 발’처럼 본래부터 대립되는 자연대립쌍의 경우를 ‘선천적 대립’이라고 한다면, 줄기 하나에 꽃 두 송이가 피는 경우처럼 非一般으로 대립되는 경우를 ‘후천적 대립’¹⁹⁾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을 書紀區分論의 α·β群과 연관지어 생각해 보면, ⑧”의 1예만이 중국인이 관여해서 중국어 용법에 맞게 기술되었다는 α群이고, 二와 兩이 쓰인 나머지 예들이 모두 β群임을 감안하면 日本書紀에서 이 용법의 경우는 α·β群에 따른 구분보다 ‘선천적 대립’과 ‘후천적 대립’에 따른 구분으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즉, 兩은 선천적 대립에 주로 사용되었지만 후천적 대립을 포함하여 함께 사용된 반면에, 二는 비일반적인 것으로 대립되는 후천적 대립에만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3.2.3 二·兩+용언

⑩其國去京、五千餘里。居筑紫南海中。切髮草裳。粳稻常豐。一殖兩收。(卷29 天武紀下 十年八月)

⑪十二月壬午朔、天暖如春氣。甲申、雷五鳴於晝、二鳴於夜。(卷24 皇極紀 元年十二月)

⑩은 ^{たねの}多^の彌^{しま}嶋^を를 설명하는 내용으로 ^{たねの}多^の彌^{しま}嶋^を는 벼(粳稻)가 항상 풍요로운 곳으로, ^{ひと}‘一^うたび^{ふた}殖^をゑて兩^をたび^む収^む’ 즉, 한 번 심어 두 번 수확한다는 의미로 兩 뒤에 동사 收가 왔다. 그리고 ⑪은 ‘雷、五晝鳴り、二夜鳴る(大系本)、雷五たび晝に鳴り、二たび夜に鳴る(小學館本)’로 혼동되어, 천둥이 낮에 다섯 번, 밤에 두 번 쳤다는 의미로 二 뒤에 역시 동사 鳴이 왔다. 이것은 兩이 副詞性(連用) 수식어로 동사 앞에 위치하여 ‘同時’ 혹은 ‘雙方’의 의미를 나타내는 용법으로 고대 중국어에서는 兩이 담당하는 용법인데 日本書紀에서는 총 5회(兩 2회·二 3회)가 보였다. 나머지 3예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9)편의상 ‘선천적 대립’과 ‘후천적 대립’이라는 용어는 필자가 명명한 것이다. 후천적 대립은 ‘兩’에도 2예 존재한다. 有大樹、自大井河流之、停于河曲。其大十圍。本壹以末兩。(卷11 仁德紀 六十二年五月)、飛驒國有一人。曰宿儺。其爲人、壹體有兩面。面各相背。(卷11 仁德紀 六十五年)

- ⑩' 時天皇異之。則舉燭親乘式占曰、天下兩分之祥也。然朕遂得天下歟。(卷28 天武紀上 元年六月)
- ⑪' 辛丑、雷三鳴於東北角。庚寅、雷二鳴於東、而風雨。(卷24 皇極紀 元年十二月)
- ⑪" 天皇命有司、二分子孫、一分爲大草香部民、以封皇后。一分賜茅渟縣主、爲負囊者。(卷14 雄略紀 十四年四月)

卷27의 天智紀 卽位前紀에 보면 ‘水陸二路’라는 표현이 보이는데 二 뒤에 명사 路가 왔다. 또한 2.2의 고대 중국어 용법에 제시된 二夫, 二毛, 二心 등을 보더라도 마찬가지로 뒤에 명사가 온다. 한편 兩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표현인 水陸兩用이라든지 一舉兩得, 一刀兩斷과 같이 兩 뒤에 동사 用·得·斷이 온다. 제시한 예가 4자성어만인데, 이것은 兩斷·兩得·兩立 등과 같이 단독으로도 존재한다. 다시 말하면 일반적으로 명사와의 결합시에는 二가, 동사와의 결합시에는 兩이 쓰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동사와 결합하여 ‘同時’ 혹은 ‘雙方’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는 兩의 용법이기에 때문에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다면 ⑩과 같이 兩이 2회 쓰인 것은 고대 중국어 용법에 비추어 타당하나, ⑪과 같이 二가 쓰인 예는 엄밀하게 말하면 오용이라고 할 수 있다. 더군다나 동사와 함께 쓰인 경우 二가 3회이고 兩이 2회로 오히려 二가 동사와 함께 쓰인 예가 많은데 이것은 고대 중국어의 용법에 비추어 보면 적합하지 않다. 그렇다면 日本書紀 내의 이와 같은 二의 용법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書紀區分論에 따르면 ⑩, ⑩', ⑩"는 β群이 아니라 모두 α群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분명한 오용으로 보기에는 무언가 다른 이유가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해 볼 수 있다. 이에 대해서 두 가지로 추정해 볼 수 있는데, 먼저 제시된 예의 해당 부분인 ⑩의 兩收, ⑩'의 兩分, ⑪의 二鳴, ⑪'의 二鳴, ⑪"의 二分을 자세히 살펴 보면, ⑩'과 ⑪"는 동일한 동사가 위치해 있다. ⑩'는 ‘則ち燭を挙げて親ら式を乗り、占ひて曰はく、「天下兩分の祥なり。然して朕遂に天下を得むか」とのたまふ’로 혼독되고, ⑪"는 ‘天皇、有司に命せて、二に子孫を分ちて、一分をば大草香部民として、皇后に封したまふ。一分をば茅渟県主に賜ひて、負囊者とす’로 혼독되어 兩分은 천황이 직접 점을 치면서 천하가 나누어 질 징조로 마침내 본인이 천하를 얻을 것이라는 의미이고, 二分은 자손(子孫)을 둘로 나누어 한쪽은 황후로 봉하고, 다른 쪽은 負囊者에 처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兩分과 二分은 前者는 현 정권이 무너지는 의미인 반면, 後者는 둘로 나누다라는 의미로 분명히 의미의 차이를

보인다. 다음으로, 二鳴이 두 차례가 보였는데 ㉠은 二鳴 이외에도 같은 문장 내에 五鳴이라는 五의 표현이 보이며, ㉠' 또한 三鳴의 숫자 三이 보인다. 이것은 ㉠의 경우는 앞에 보이는 五鳴, ㉠'의 경우는 三鳴과 맺구를 이루면서 숫자에 이끌려 二를 쓴 것이라고 보여진다.

이와 같이 日本書紀에서 二가 동사와 결합한 二分의 경우는 둘로 나누는 것에 초점을 두어 동시에 나눈다는 兩分과는 분명한 의미적인 차이가 있고, 二鳴의 경우도 낮에 다섯 번, 밤에 두 번이라는 맺구 관계 속에서 동사 鳴 보다 횃수 표현에 초점을 둔 것이다. 특히 二鳴의 경우는 고대 중국어의 용법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엄밀하게 오용이라고 할 수 있지만, 앞의 두 경우 모두 오용으로 보기보다는 어법적인 요소보다 의미적인 요소를 우선시한 배경 하에 이루어진 표기라고 추정할 수 있다.

3.2.4 獨一無二

㉡十二日、國司國造、勿斂百姓。國非二君。民無兩主。(卷22 推古紀 十二年四月)

㉢蘇我臣、專擅國政、多行無禮。天無二日、國無二王。何由任意悉役封民。自茲結恨、遂取俱亡。(卷24 皇極紀 元年十二月)

㉡는 憲法十七條 중 十二條의 일부분인데 내용을 보면, ‘十二に日はく、國司國造、百姓に斂らざれ。國に二の君非ず。民に兩の主無し’로 혼독되어 ‘나라에 두 임금 없이 백성에게 두 왕이 없다’는 의미이다. ㉢은 蘇我蝦夷와 入鹿의 전횡을 묘사하는 내용인데, ‘蘇我臣、專國の政を擅にして、多に行無禮す。天に二つの日無く、國に二つの王無し。何に由りてか意の任に悉に封せる民を役ふ」といふ。茲より恨を結びて、遂に俱に亡されぬ’로 해당부분을 보면, ‘하늘에 두 태양이 없듯이 나라에도 두 왕이 없다’는 의미이다. 두 예문에서 二, 兩과 결합된 君·主·日·王은 모두 ‘군주, 태양, 임금(왕)’을 나타내며 본래 세상에 하나가 존재해야 이치에 맞는 것, 다시 말하면 둘이 존재할 수 없는 것을 나타낸다. 이미 2.2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 용법은 兩政과 같이 일반적으로 兩과 결합하여 쓰는 ‘특수상황’에 해당하므로 고대 중국어에서 兩이 담당하는 용법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용법으로 日本書紀에서는 兩이 2회 이외에 二가 무려 6회나 쓰였다. 나머지 예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故吾以饒速日命、爲君而奉焉。夫天神之子、豈有兩種乎。(卷3 神武紀 即位前紀戊午年十二月)

㉢' 到于穴門時、其國有人。名伊都々比古。謂臣曰、吾則是國王也。除吾復無

三王。(卷6 垂仁紀 二年是歲)

⑬ " 告天天地祇曰、天覆地載。帝道唯一。而末代澆薄、君臣失序。皇天假手於我、誅殄暴逆。今共瀝心血。而自今以後、君無二政、臣無貳朝。若貳此盟、天災地妖、鬼誅人伐。皎如日月也。(卷25 孝德紀 即位前紀)

⑬ ' " 臣即恭承所詔、奉答而曰、天無雙日。國無二王。是故、兼并天下、可使萬民、唯天皇耳。(卷25 孝德紀 大和二年三月)

⑫ ' 는 '饒速日命을 君으로 받들 것이다. 어찌 天神의 子가 둘이 될 수 있겠는가?'라는 내용으로 兩種 자체는 獨一無二가 아니라, 가리키는 대상이 '君'이므로 특수상황의 용법에 속한다. ⑬ ' 는 '伊都々比古가 스스로 내가 이 나라의 왕이니 나를 제외하고 다른 왕은 결코 없다'라는 내용으로 '二王'이 쓰였다. ⑬ " 는 '지금부터 君은 두 정권을 갖지 않으며, 臣은 두 왕조를 섬기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二政'과 뒤의 '貳朝'가 맺구로 쓰였고, ⑬ ' " 는 '天에 해가 두 개가 아니듯이 國에도 두 왕은 없다'는 내용으로 '雙日'과 '二王'이 맺구로 쓰였다. 이와 같이 모두 둘이 존재해서는 안되는 경우를 나타내는 獨一無二의 용법인데, 日本書紀에서는 兩보다 二가 활발히 쓰이고 있고, 게다가 兩의 2예가 모두 β群이고, 오히려 二는 α群에 4예, β群에 2예가 보여 書紀區分論에도 크게 위배되는 현상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현상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특히 ⑬의 경우는 小學館本 皇極紀 p.71 頭註19에도 나와 있듯이 『禮記』의 '孔子曰, 天無二日、土無二王'의 표현을 재인용한 것이다. 그렇다면 2.2에서 언급한 王力의 분석기준과 중국 원전에 차이가 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문헌을 대상으로 獨一無二의 대상인 君·主·王·政·朝가 결합된 경우를 조사해 보았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文獻名	兩主	兩君	兩王	兩政	兩朝	小計	二主	二君	二王	二政	二朝	小計
周易						0		1				1
管子						0		5	3	4		12
戰國策		2	2			4	7	6				13
晏子春秋		1				1						0
毛詩						0			1			1
論語		1				1						0
墨子						0		4				4
國語		2				2		8	3			11
春秋穀梁傳		2				2		1				1
春秋公羊傳		1				1		3				3
禮記		1				1	3	2	3			8
左傳		10		1		11		17	3	1		21

文獻名	兩主	兩君	兩王	兩政	兩朝	小計	二主	二君	二王	二政	二朝	小計
莊子						0		1				1
孟子						0			2			2
荀子		1	1			2						0
呂氏春秋	1					1		3				3
韓非子	3					3	6	16				22
新語		2				2						0
淮南子	1					1	1	6				7
史記	11	5	2			18	3	14	5			22
鹽鐵論	1					1		2				2
論衡	5	1				6	1	6	5			12
漢書	8	3	2			13	1	6	2			9
潛夫論			1			1						0
抱朴子內篇						0	1	3				4
抱朴子外篇						0		2				2
後漢書	2		1			3	4	7	7			18
世說新語			1			1			5			5
唐詩					1	1			1			1
小學						0		1				1
計	32	32	10	1	1	76	27	114	40	5	0	186

何樂士는 ‘左傳의 數量詞’에서 左傳 속에서는 ‘二’와 ‘兩’의 용법이 분명하지 않아 가끔 혼용된다²⁰⁾고 하고 있는데, 표에서도 左傳 이후 문헌에서는 이전과 비교하면 분명 혼용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左傳 이후에서는 혼용 양상이 보여도 異論이 없겠으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左傳 이전에 二가 혼용되고 있는 경우는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 左傳 이전의 상위 10권의 문헌 속에서 二의 용례가 많이 보이는 管子, 戰國策, 國語, 春秋公羊傳의 용례를 살펴보았다. 그 일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政)

是故春三月以甲乙之日發五政, 一政曰 :

論幼孤, 舍有罪; 二政曰 : 賦爵列, 授祿位; 三政曰 : 凍解修溝瀆, 復亡人; 四政曰 : 端險

阻, 修封疆, 正千伯; 五政曰 : 無殺斃夭, 毋蹇華絕芋. 五政苟時, 春雨乃來. <管子>

20) 呂叔湘等著(1989) 『語言文字學術論文集』 知識出版社 p.99

‘二’和‘兩’的用法在《左傳》中界限已不是那麼清楚, 時有混用, …… 又如:

并后匹嫡, 兩政耦國, 亂之本也. (桓18年) / 內寵并后, 外寵二政, 嬖子配適, 大都耦國, 亂之本也. (閔2年)

(主)

張孟談因朝知伯而出，遇知過轅門之外。知過入見知伯，曰：“二主殆將有變。”君曰：“何如？”對曰：“臣遇張孟談于轅門之外，其志矜，其行高。”知伯曰：“不然，吾與二主約謹矣，破趙三分其地，寡人所親之，必不欺也。《戰國策》

(王)

國君無親，以國爲親，先君叔振，出自文王，晉祖唐叔，出自武王，文·武之功，實建諸姬，故二王之嗣，世不廢親。《國語》

(君)

晉殺其大夫里克，里克弑二君，則曷爲不以討賊之辭言之。惠公之大夫也。《春秋公羊傳》

첫 번째 二政은 서수의 용법으로 쓰였고, 두 번째 二主는 인명으로 쓰였다. 세 번째 二王과 二君은 대명사적 용법으로 쓰였다. 따라서 동일하게 君·主·王·政이 결합된 경우라도 위 예에서 보듯이 上古시대 문헌에서 다수의 예가 서수나 인명 혹은 대명사적 용법으로 쓰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초창기의 二는 인명 혹은 대명사적인 쓰임의 용례가 훨씬 많았다. 그러나 獨一無二한 경우를 나타내는 용례²¹⁾도 소수 존재하였기 때문에 엄밀히 말한다면 上古시대부터 혼용의 양상은 존재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獨一無二의 용법을 兩이 담당한다는 논거에는 초기에도 일부 혼용 양상도 보였다고 수정할 필요가 있으며, 左傳 이후에 혼용 양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하기 때문에 禮記에 보이는 ‘孔子曰，天無二日，土無二王’의 二의 용법은 禮記의 성립 시기가 漢代인 것으로 미루어 左傳 이전에는 兩이 쓰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이미 二의 혼용 시기가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므로 日本書紀에서의 二가 兩과 혼용의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은 이와 같은 배경과 무관하지 않은 것 같다. 다시 말하면, 日本書紀에 나타난 獨一無二 용법의 혼용은 書紀區分論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중국어 용법에서 혼용이 이루어진 시기의 용법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

3.2.5 단독으로 實數를 나타내는 경우

⑭是月、勅、凡諸寺者、自今以後、除爲國大寺二三、以外官莫治。(卷29 天武紀下 九年四月)

21) 夫諸侯無二君，而周無二王，君若無卑天子，以干其不祥，而曰吳公，孤敢不順從君命長弟！許諾。”《國語》

⑮是以、令頭滌海水。若有驗者、髮自分爲兩。卽入海洗之、髮自分也。(卷9 神功紀 攝政前紀 仲哀天皇九年四月)

⑭는 ‘是の月に、勅したまはく、凡そ諸寺は、今より以後、國の大寺たるもの二三を除きて、以外は官司治むること莫れ’의 의미로, ⑮는 ‘是を以て、頭を海水に滌がしむ。若し驗有らば、髮自づからに分れて兩に爲れ、とのたまふ。卽ち海に入れて洗ぎたまふに、髮自づからに分れぬ.’의 의미로 단독으로 쓰여 순수한 숫자(實數)의 의미를 나타낸다. ‘二’가 13회, ‘兩’이 2회²²⁾ 보여 二가 단연 우세하게 쓰였다.

3.2.6 유관성을 지닌 쌍방

王送知磬，曰：“子其怨我乎？”對曰 “二國治戒，臣不才，不勝其任，以爲俘馘。(左傳 成3)

제시된 예문의 앞 문장을 보면, ‘晉人歸楚公子穀臣與連尹襄老之尸于楚，以求知磬。於是荀首佐中軍矣，故楚人許之’의 내용으로 여기에서의 ‘二國’은 앞에 나온 ‘晉’과 ‘楚’를 받아 대명사적인 용법²³⁾으로 쓰인 경우이다. 이러한 대명사적인 용법은 日本書紀에서 총 222회가 쓰였는데, 그 중 二가 201회, 兩이 21회가 나타난다. 그런데 이 대명사적인 용법을 좀 더 자세하게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⑯次有神。伊奘諾尊·伊奘冉尊。一書曰、此二神、青樞城根尊之子也。(卷1 神代上 第二段 本文·一書第一)

⑰時新羅使者啓之曰、無犯采女。唯愛京傍之兩山而言耳。(卷13 安康紀 四十二年十一月)

⑱是日慧慈·慧聰、二僧、始住於法寺興寺。(卷22 推古紀 四年十一月)

⑯의 경우 ‘一書に曰はく、此の二の神は、青樞城根尊の子なり’의 내용으로 ‘二神’은 앞 문장에 나온 ‘伊奘諾尊·伊奘冉尊’을 받고 있는데 그 앞에 다시 대명사 此가 온 ‘此+二+명사’의 형식이다. 이와 같이 앞에 대명사를 동반한 형식을 여

22) 두 예가 9권과 29권으로 모두 β群이고, 특히 ⑮의 兩은 언뜻 보기에 둘로 갈라진다는 즉 양쪽으로 갈라진다는 의미이므로 뉘앙스가 단순한 숫자의 의미와는 다른 것 같지만, 갈라져서 둘이 되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實數로 쓰인 것은 분명하다.

23) 중국어 용법에서 ‘유관성을 지닌 쌍방’을 나타내는 용법이다. 기술의 편의상 ‘대명사적 용법’으로 나타내기로 한다.

기에서는 임시로 ‘대명사1’이라고 칭하기로 한다. ⑰의 경우 ‘兩山’은 바로 앞 문장 즉 ‘故訛畝傍山、謂字泥咩、訛耳成山、謂瀾々耳’의 ‘畝傍山’과 ‘耳成山’을 받아 兩이 대명사의 역할을 하고 있으나, ⑰과는 달리 앞에 대명사가 없다. 이 경우를 ‘대명사2’라고 칭하기로 한다. ⑱의 경우 ‘二僧’은 바로 앞의 ‘慧慈와 慧聰’을 의미한다. 그런데 대명사란 말 그대로 앞에 나온 내용을 받는 것이기는 하나 한 문장 안에서 그것도 바로 해당 명사 뒤에 쓰인 이 경우는 다른 대명사의 쓰임과 견주어 볼 때 ‘慧慈와 慧聰 두 승려’로 바로 二僧은 앞 두 승려를 받고는 있지만 대명사 보다는 수사성이 더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를 ‘대명사3(=수사)’이라고 칭하기로 하면 총 222회를 세 유형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대명사1	②대명사2	③대명사3	
二	20(10%)	56(28%)	125(62%)	201
兩	6(28%)	10(48%)	5(24%)	21
합계	26	66	130	222

대명사적인 용법의 관점에서 보면 위의 표는 日本書紀에서 二와 兩의 쓰임의 차이를 잘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兩이 二에 비하면 대명사를 동반하거나 (28%:10%), 대명사와 동반이 없더라도 대명사적인 용법(48%:28%)으로 쓰인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반면에 二는 대명사3의 비율이 24%:62%로 나타나 二가 수사성이 강하다는 사실을 지적할 수 있다.

3.2.7 助數詞

⑰ 阿倍臣遣船、喚至兩箇蝦夷、問賊隱所與其船數。(卷26 齊明紀 六年三月)

⑱ 仍賜良馬二匹·同船二隻·弓五十張·箭五十具。(卷19 欽明紀 十四年六月)

⑰의 兩은 蝦夷에 대한 조수사로, ⑱의 二는 馬·船에 대한 조수사로 쓰여 총 150회가 보였는데 그 중 二가 145회, 兩이 5회가 쓰여, 조수사(수량사)에 二가 주로 쓰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사실은 앞 절에서 二가 대명사3 즉 수사성이 강한 예로 125회 사용된 것과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두 예를 자세히 보면, 兩의 경우는 해당부분의 兩箇蝦夷가 ‘兩+조수사+명사’의 어순인 반면, 馬二匹은 ‘명사+二+조수사’의 어순으로 되어 있다. 전체 예를 살펴 보면 수량사 兩의 경우는 5회중 1예만이 二의 어순인 ‘명사+兩+조수사’의 어순이고 나머지 4예는 ‘兩+조수사+명사’의 어순인 반면에, 二는 모든 예가 ‘명사+二+조수사’의 어순이다. 이 ‘명사+二+조수사’의 어순은 중국어 수량사(조수사)의 어순과도 일

치하는데 二와 兩의 쓰임은 이와 같이 어순의 차이에 의한 것이 한 특징이며 또한 결합하는 조수사를 보면, 兩의 경우는 오로지 ‘箇’ 한 종류인 반면, 二의 경우는 ‘竿·個·頃·囊·具·口·狗·軀...’ 등 그 종류가 무려 40여 종류에 이른 점도 특징이다.

이상 3장에서 살펴 본 내용을 중심으로 주로 二와 兩 뒤에는 어떠한 字들이 오는지를 분류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二	兩
연월일	年, 月, 日	
서수	其, 第(二앞에 음)/宮, 也, 女, 曰, 子, 謠歌	
비유	途, 儀	
同樣兩物		劍, 槻樹, 歷木, 面, 処之築
獨一無二 (가설상황)		家奴婢
단위사 (양사)		黃金, 銀(兩앞에 음)
고유명사	(궁명)槻宮 (인명)岐皇子, 名洲, 田塩, 田造塩, 派皇子 (지명)斯二岐 (관직명)首位, 位, 造	(궁명)槻宮 (인명)道入姬皇女 (선명)枝船
자연대립쌍	萼, 枝, 花	脚, 手, 足, 脇
二·兩+용언	鳴, 分	収, 分
獨一無二 (특수상황)	君, 王, 日, 政	種, 主
실수	百, 千	參
유관성을 지닌 쌍방 (또는 수사)	女, 理, 門, 首, 神, 王, 邑, 門, 嬪, 船, 臣, 天皇, 処, 国, 角, 階, 谷, 丘, 郡, 宮人, 男, 女, 尼, 隊, 灯, 等, 狼, 路, 老翁, 鹿, 墨, 万, 倍, 兵, 妃, 社, 舍屋, 三卿大夫, 上, 上峯, 塞, 船, 城, 姓, 所, 僧, 氏, 鵝, 邑名, 人, 日, 子, 精兵, 弟, 族, 種, 衆, 親, 土蜘蛛, 通門, 漢直, 兄, 皇子, 糸, 歲, 舍人	樹, 首歌辞, 僧, 人, 処, 家, 国, 大臣, 山, 兒, 陣, 道, 夜
조수사	竿, 個, 頃, 囊, 具, 口, 狗, 軀, 卷, 騎, 端, 頭, 屯, 連, 領, 里, 枚, 面, 艘, 隻, 本, 部, 束, 尋, 人, 丈, 町, 重, 尺, 圜, 把, 匹, 戶, 糸, 步, 歲, 裴	箇, 箇鑰匙, 箇匏, 箇蝦夷

4. 나가는 말

이상과 같이 유사한 의미를 지닌 ‘二’와 ‘兩’ 두 字의 시대별 용법과 『日本書紀』에서 이 두 字가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살펴보았다. 검토한 결과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日本書紀에서는 ‘二’가 총 775회, ‘兩’이 총 54회 쓰였는데, ‘二’의 경우 실수 308회(약40%), 서수 75회, 비유 2회, 그리고 ‘兩’의 경우 同樣兩物 5회, 獨一無二 1회, 單位詞(量詞) 5회는 各用項目으로 쓰여 문제가 없으나, 몇 가지 용법에서 각자의 고유의 용법에서 벗어나 서로 혼용되어 쓰였다.

첫째, 兩이 쓰여야 하는 自然對立雙의 용법에 ‘兩’의 7회 이외에 ‘二’도 3회나 쓰였다. ‘二’의 세 예 모두가 특별한 경우를 기술하는데 쓰여 兩의 선천적 대립에 대하여 후천적 대립으로 분류하였으나, 이러한 후천적 대립은 兩에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자연대립쌍에 二가 쓰인 경우는 고대 중국어의 관점에서 본다면 오용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副詞性(連用) 수식어로 동사 앞에 위치하는 兩의 위치에 二가 3회 쓰였다. 二鳴은 二구 관계 속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二分은 兩分과 의미의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二가 쓰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나, 고대 중국어의 관점에서 본다면 오용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二, 兩과 결합된 君·主·日·王은 둘이 존재할 수 없는 것을 나타내는 獨一無二의 용법으로 兩이 담당함에도 불구하고 兩 2회 이외에 二가 무려 6회나 쓰였다. 중국문헌을 대상으로 君·主·王·政·朝 등이 二와 결합된 용례를 조사해 본 결과, 上古시대 문헌에서 獨一無二의 용법도 존재하여 이미 혼용의 양상은 있었다. 따라서 獨一無二의 용법에 二가 쓰인 것은 이와 같은 배경과 무관하지 않으며, 獨一無二의 용법을 兩이 담당한다는 논거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

넷째, 유관성을 지닌 쌍방은 총 222회 중 二가 201회, 兩이 21회 나타났다. 대명사1과 대명사2에서는 兩과 二의 비율이 각각 28%:10%, 48%:28%로 兩이 높은 반면에, 대명사3에서는 24%:62%로 二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 二가 수사성이 강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変体漢文体이기 때문에 자료의 성격이 다르지만, 古事記의 二와 兩을 살펴보면, 먼저 兩의 경우는 총 5회로 고유명사(兩兒嶋 天兩屋 天兩屋嶋) 3회와 자연대립쌍(即握其衿以引率來、到小治田、掘穴而隨立埋者、至埋腰時、兩目走拔而

死) 1회, 그리고 조수사(如此令惚苦云、授鹽盈珠、鹽乾珠、并兩箇、卽悉召集和邇魚問曰) 1회가 나타났으며, 二의 경우 총 199회로 유관성을 지닌 쌍방이나 수사로 쓰인 184회(二字89, 二柱48, 二神14, 二人13 등) 이외에는 조수사(珠二貫 九尺二寸半 廣二分 一丈二寸 少子二口) 5회, 실수(女二3 女十二1) 4회, 고유명사(伊豫之二名嶋 若沼毛二侯王 若野毛二侯王) 3회, 자연대립쌍(故、所殺神於身生物者、於頭生蠶、於二日生稻種、於二耳生粟、於鼻生小豆、於陰生麥、於尻生大豆) 2회와 연월일(戊寅年十二月崩) 1회로 日本書紀와는 달리 사용된 항목의 수가 상당히 적다. 특히 兩이나 二가 동사와 함께 쓰인 예가 보이지 않고, 二에도 자연대립쌍의 예가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고대 중국어의 용법이 상당히 축소되어 가는 과정에 있음을 볼 수 있다. 日本書紀 이외의 다른 문헌에서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고대 일본어의 문법이나 의미 영역 체계 내로 어떻게 수용되어 갔는지의 연구는 고대 일본어의 표기법 내지 용자법의 실태를 파악하는 데 매우 중요할 것이다. 아울러 두 字의 쓰임에 대한 더 심도있는 연구를 위하여 유사한 의미를 지닌 ‘再·重·双’ 등의 字들에 대한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参考文献】

- 박영중외(2002) 『중국문화에 담긴 중국어 이야기』 다락원
- 大野晋外(1965~1967) 『日本古典文学大系 日本書紀上·下』 岩波書店
- 川本崇雄(1975) 「日本語の數詞の起源」 『季刊人類学』 6-2京都大学人類学研究会編
- 築島裕(1965) 「日本語の數詞の変遷」 『言語生活』 166
- 津留繁雄(1954) 「万葉集に見られる數詞について」 『不知火』 7
- 藤堂明保(1997) 『学研漢和大辞典』 学習研究社
- 中田祝夫(1960) 「古事記の古訓-數詞の訓み方の一つの場合-」 『二松学舎大学論集』 二松学舎大学編 pp.41-50
- 福田昆之(1982) 「數詞の母音調和の識別性の分析(補)」 『言語と言語学』 5
- 毛利正守外(1994) 『新編日本古典文学全集 日本書紀』 小学館
- 安田尚道(1978) 「古代日本語の數詞をめぐって」 『言語』 7-1
- 洪成玉主編(1998) 『古代汉语教程』 中华书局 pp.367-376
- 李德津 程美珍(1990) 『外国人实用汉语语法』 华语教学出版社 pp.59-73
- 吕叔湘(1989) 『语言文字学术论文集』 知识出版社出版 pp.89-100
- 马忠(1983) 『古代汉语语法』 山东教育出版社 pp.303-309
- 王力(1996) 『汉语史稿(修订本)』 中华书局出版 北京 pp.246-249
- 周淑敏编著(1996) 『古汉语自学入门』 中国人民大学出版社 pp.63-64

要 旨

本稿は、数詞表示字の中で意味が類似している‘二’と‘兩’の二字について現代中国語と古代中国語の用法の差を比較分析し、それに基づいて、『日本書紀』でこの二つの字がどのように反映されているのかを考察したものである。結果をまとめると、次のようである。

『日本書紀』で‘二’は計775回、‘兩’は計54回用いられている。‘二’は、実数として308回(約40%)、序数として75回、比喩として2回用いられ、‘兩’は、同様兩物として5回、獨一無二として1回、單位詞(量詞)として5回用いられている。両者の用法は、各用項目では問題はないが、いくつかの項目では各自の固有の用法から離れ、混用されたケースが観察された。それらは以下の通り、四つのタイプに分類できる。

一、‘兩’が用いられるべき「自然対立双」の用法に‘兩’(7回)以外に‘二’も3回用いられた。‘二’の3例はすべて特別な場合を記述するところに用いられ、仮に‘兩’を先天的な対立とすると、‘二’は後天的な対立と分類したが、こういう後天的な対立は兩にも存在するので結果的に自然対立双の用法に‘二’が用いられた場合は、古代中国語の観点からみると、誤用であると考えられる。

二、副詞性(連用)の修飾語として動詞の前に来る‘兩’の位置に‘二’が3回用いられた。この場合の「二鳴」は対句の関係からの影響を受けたと思われる、また「二分」は「兩分」と意味の面で差があるために‘二’が用いられたと推定できるが、古代中国語の観点からみると、誤用であると言えよう。

三、‘二・兩’と結合された「君・主・日・王」は、二つの存在はあり得ない場合を表わす「獨一無二」の用法で‘兩’が担当する用法であるが、‘兩’(2回)以外に‘二’が6回も用いられた。そこで、中国文献を対象に「君・主・王・政・朝」などが‘二’と結合した場合の用例を調べた結果、上古時代の文献の中ですでに「獨一無二」の用法が確認され、その時代から混用の様相は存在していたことが分かった。したがって、『日本書紀』で「獨一無二」の用法に‘二’が用いられたのはこのような背景と無関係ではなく、「獨一無二」の用法を‘兩’が担当するという論拠は再考の余地があると思われる。

四、「有関性のある双方」は、合計222回の中、‘二’が201回、‘兩’が21回見られた。代名詞1と代名詞2では、‘兩’と‘二’の比率はそれぞれ「28%:10%」「48%:28%」で、‘兩’の方が高い反面、代名詞3では「24%:62%」で‘二’が圧倒的に高く、‘二’の方が数詞性が強いということが言える。

キーワード：二、兩、數詞、比喩、同様兩物、獨一無二、自然對立雙、
副詞性の修飾語、關性のある双方

투 고 : 2007. 5. 31

1차 심사 : 2007. 6. 9

2차 심사 : 2007. 6. 30

住 所 : (780-713)경주시 강동면 유금리 위덕대학교 일본어학부

電 話 : 054-760-1534

e-mail : hjahn@uu.ac.kr